

# 韓藥文化의 正統性을 守護 繼承하자

大韓韓藥協會長 姜 容 鉉



悠 久한 歷史의 흐름을 통하여 精誠어린 맘을 흘려 最善을 다했을 경우에도 歷史는 때로는 우리들을 斷涯의 끝으로 몰아세우고 온갖 試鍊을 안겨준 史實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荊棘의 고통을 自救自存의 意志와 勇氣로 극복하고 累卵의 危機에서 나라와 民族을 지켜온 先烈의 기개와 신념으로 우리들의 오늘, 선택받은 韓藥文化의 正統性을 수호 계승하기 위하여 소담스런 來日에의 꿈을 안고 情熱을 불태

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歷史와 傳統을 거부하고 조여드는 外部의 압박에 대한 自我守護의 결단인 것이며, 또한 「뽕박에 저항하지 않는 무리는 그 文化와 文明을 함께 잃는다」는 敎訓에 대한 구체적 실천인 것입니다.

그 암울했던 36년간의 異民族의 압제 속에서도 韓醫學을 갈고 닦아 겨레의 건강을 지켜온 우리의 선배 韓藥人들은 學問을 통하여 뜻을 묶어 단결했고, 찬란했던 韓藥文化의 主體的 公지와 자존심을 探究熱情으로 具現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教育立國의 理念으로 뭉쳐 日帝에 항거하며 後學을 길러낸 그 숭고한 뜻은 오늘 우리들의 知性을 통하여 「大韓韓藥」을 탄생시켰으며, 이제 그 二號를 맞게 되었습니다

敬愛하는 會員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를 嚆矢로 하여 더욱더 學究에 정진 「大韓韓藥」을 알차고 소담하게 가꾸어 우리의 力量을 축적하므로써 國民의 애정과 신뢰 속에 傳統韓藥專門人으로서의 位相과 品位를 정립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大韓韓藥 二號의 出刊을 會員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며, 그간 이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李麟星 學術委員長을 비롯해서 委員여러분과, 정성을 다하여 玉稿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年 3月